



# 연중 대학 평가, 통합관리 시스템 통해 해결해야

강홍준 |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 소장

2~3월엔 교육역량강화사업 준비, 4~6월엔 대학정  
보공시자료 입력과 업데이트, 7~8월엔 중앙일보 대학  
평가 준비, 9~11월엔 대학 자체평가 준비 및 실시...

대학 본부 기획처의 연간 일정표는 평가로 가득 차  
있다. 평가 담당자들은 수치 자료와 씨름한다. 수치 하  
나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수치 하나에 순위  
가 오를 수 있다. 연중 인터넷에 공개되는 학교 정보는  
대학의 이미지와 직결돼 있다. 인터넷에 올린 잘못된  
등록금 정보나 취업률 때문에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대학 대학가에서는 일 년 내내 평가를 받는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10년 전과 현재의 가장 큰 차이  
는 평가 문화의 확산이다. 2000~2001년과 2007~2009  
년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필자는 그  
차이를 실감하고 있다. 과거엔 대학이 평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일반적인 현상  
이다. 대학의 각종 자료와 수치가 과거엔 관리가 안 된  
채 흩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집적 관리되고 있는 것도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상호 연계되는 평가

2007년 10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2008년 12월  
대학의 자체평가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대학들은 사실  
상 평가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또한 평가를 통해 스스  
로를 진단하는 도구로 인식하게 됐다. 특히 한국대학교  
육협의회가 대학에 대해 인증을 주는 인정기관으로 지  
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학인증원 등 학과별 인증 시  
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대학에 대해  
인증을 주는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학은 평가와 인증(accreditation)이 공존하는  
복잡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대학이 받고 있는 각종 평가가 상호 연  
계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교육과학기술  
부가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역량강화사업  
(2009년 기준 2,649억 원 지원 사업)은 교육지표 포물

러(공식)를 근거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육지표는 정보공시자료와 연계돼 있을 뿐 아니라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채택하는 평가지표와 유사하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국제화 수준은 외국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 중앙일보 평가 등 외부평가는 이미 국제화 지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자체평가도 마찬가지다. 대학이 채택하고 있는 자체평가엔 외부평가의 지표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심지어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 등락 여부가 대학의 자체평가 지표에 반영돼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A대학이 최근 자체평가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대학 공시, 중앙일보 평가, 대학자체평가를 상호 연계한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대학 측은 자체평가 지표를 개발하면서 공시 지표와 중앙일보 평가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지표가 상호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것이다.

표 1. A대학의 대학정보공시, 중앙일보 평가, 대학 자체평가 상호 연계 지표 현황

항 목	대학정보공시	중앙일보 평가	대학 자체평가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8	3	3
졸업 후 진로에 관한 사항	3	1	1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5	3	3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2	6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4	4
학교 발전 및 특성화 계획	1	-	1
교원 연구, 학생에 대한 교육사항	7	8	9
도서관 및 연구 지원 사항	3	1	3
기타 교육여건, 학교 운영상태	9	1	3
전체 지표 수	43	2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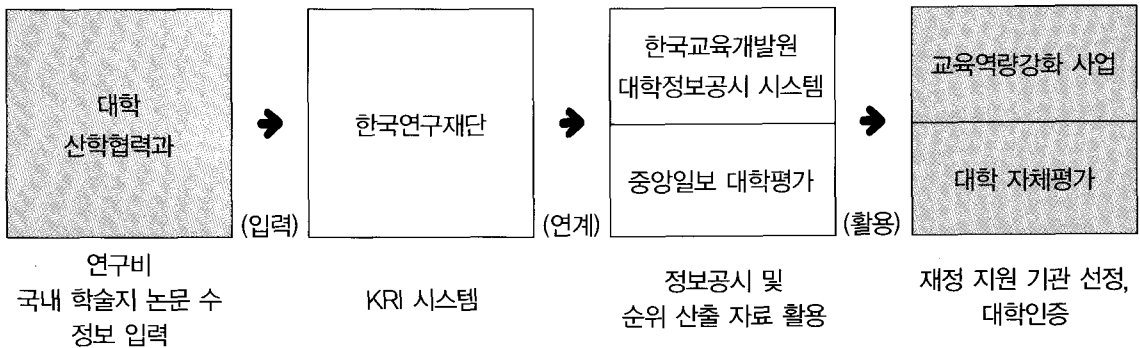
이런 상호 연계 추세는 평가 지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지표 산출에 반영되는 정량적인 자료가 상호 연계돼 있기도 하다.

아래의 <표 2>는 연구비와 국내 학술지 논문 수 자료가 대학, 연구재단, 중앙일보 등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준다. 대학의 산학협력과에 입력한 자료가 한국연

구재단의 연구 관련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며, 이 자료가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에 게시될 뿐 아니라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입력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공시 결과는 교과부의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교육지표 포털러와 상호 연계된다. 이러한 기관 간 자료 등 상호 연계 체계는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 정량적 자료의 기관 간 상호 연계의 사례



## 대학의 자료 관리 실태는

이처럼 자료와 지표 간 공유 및 상호 연계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학 내부에선 자료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주로 대학 내부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처의 기획팀 또는 평가지원과 등이다. 기획처가 중심이 돼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대비를 하기 때문에 기획처로 대학 내 각종 자료가 모인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대학이 비슷하다. 기획처의 평가 담당자는 각 단과대나 연구처, 도서관 등의 실무자에게 연락해 정기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각 담당자들은 이에 응한다. 자체평가가 도입되면서 이 자료들은 축적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자료 축적 및 생성에 있어서 대학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당수 대학들은 평가 관련 자료들의 관리나 자료 생성을 개인에게 맡기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각 대학의 연구 실적은 교수가 자신의 자료를 입력하지 않으면 집계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승진 연한에 도래한 교수들만이 연구비 수주 등 연구 실적을 제대로 입력할 뿐이어서 누락되는 자료가 많았던 것이다. 현재 이런 사례는 연구실적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되

면서 사라지고 있으나 많은 대학의 자료관리 시스템은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가 담당자는 사무실 PC에 파일 형태로 각종 데이터를 저장한다. 파일을 열어 자료를 가공하고 가공된 자료는 대학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상급자에게 전달되거나 결제를 받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담당자가 없으면 심지어 자료 자체를 찾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표2〉에서처럼 대학 산학협력과가 입력한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을 거쳐 공시시스템에도 활용되는데 산학협력과 담당자가 퇴사하면 그가 입력하고, 승인한 정보가 대학 내 업무 인수 인계자에 의해 확인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학 내 연구처 산학협력과와 기획처 평가 담당자가 업무 협조가 되지 않다 보니 자료 입력 따로, 추후 확인은 따로 하는 일도 있다. 입력은 산학협력과 담당자가 했으나 공시자료 확인이나 외부평가 자료 확인은 기획처 평가 담당자가 하기 때문이다.

## 평가 통합관리 시스템 필요하다

이에 비해 일부 대학의 자료관리 시스템은 참고할만

하다. 기획처 평가담당자와 각 단과대, 연구처, 도서관 관련 부서의 자료 관리 담당자가 상호 연계돼 있다. 기획처 평가 담당자는 각 부처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각 부처의 자료관리 담당자도 입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모여진 자료는 자체평가, 외부평가, 재정지원 사업 평가 등에 맞춰 분류되고 새로 생성되기도 한다.

각 평가들이 활용하는 지표가 공통적인 게 많기 때문에 평가통합관리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이 자체평가, 외부평가 등을 통해 축적한 자료를 관리하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양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이 받는 평가 종류가 많다 보니 이러한 평가 통합 관리 시스템까지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대학들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평가를 자원배분기능에 활용하고 있다. 대학은 학과들도 다른 대학의 유사 학과들과 비교해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한다. 학과 평가 지표 5~6개(취업률 등)만 가지고 학과를 비교해 지원금을 주는 학교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가 과연 대학의 성장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평가가 대학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그 결과가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편이다.

평가는 현재 또는 과거의 실적을 포착하려는 경향이 있다. 평가를 통해 미래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으나 미래의 비전은 개의치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평가는 미래의 비전을 담아야한다. 이에 대한 고민이 더욱 절실하다. ■

## 필 / 자 / 소 / 개

### 강홍준

1991년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1992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 등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특히 199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등을 출입했으며, 중앙일보 대학평가 팀장도 맡았다.

“평가는 현재 또는 과거의 실적을 포착하려는 경향이 있다. 평가를 통해 미래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으나 미래의 비전은 개의치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평가는 미래의 비전을 담아야한다.

”

